

序 文

氏族의 根源은 本來 三親에서 비롯된다 三親이란 夫婦父子兄弟를 뜻한다 이로부터 世代가 바뀌고 子孫이 繁盛함에 따라 한 집 한 곳에서 同居키 어렵게 되자 財力과 事情이 許容하는 대로 各處에 흩어지게 되었으니 멀리 海外까지 移住하는 境遇도 생하다 이것은 人間生活上不可避한 趨勢다 우리 卞氏가 이 땅에 삶의 터전을 잡게 된 것은 高麗時代로遡及된다 卽侍 中文烈公諱庭實께서 八溪君으로 册封을 받아 居住키始作한 것으로 지금부터 近一千年으로 推定되며 世代는 三十有余에 이른다 우리 氏族이 비록 大姓閥族은 못된다 해도 全國的으로 一萬余戶에 數萬을 넘을 程度가 돼었다 그래서 全國各處에 散在하게 되어 氏族相互間의 對面이 어려울 뿐 아니라 서로의 消息과 情況마저 알길 없으니 답답하기 그지 없은 일이다 비록 자주 相面은 못할 망정 서로의 實情과 居住地를 一目明然하게 알수 있는 方法이나 마 있어야 한다는 念

願은 오래전부터抬頭되었다 그러던 차 近年에 比較의 一族이 많은 嶺
湖南地域에서 淸軒公諱溫의 後裔가 一族相互間의 往來疎通의 一方
法으로 宗案의 發刊問題를 提案하여서 協議한 바 있었다 그러나 意見
一致를 못보고 流會되었음은 遺憾스러운 일이다 그래서 今年에는 嶺
南地域居住의 一族이 協議해서 宗案의 發刊에 合意를 보고 範圍를 進
士公諱國秀 後孫으로 限定했다 비록 限定된 宗案이나 마 發刊될 수 있
었다는 것은 不幸中多幸이라 하겠다 宗案의 內容은 이름 職業 學歷 經
歷 및 本籍住所를 明白히 記載해서 한 눈으로 一族의 生活實情과 近況
을 알 수 있도록 하려고 努力했다 그것게 함으로서 一族間의 相互情愛
를 維持하고 더욱 敦篤히 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이 宗案이 基礎가 되
어 앞으로 全國的으로 全體一族의 宗案이 이룩되길 熱望하며 一族諸
位의 積極協助를 바라 마지 않는다

己酉八月

日

同案人 舜燮 序

草溪卞氏進士公派世系圖

始祖 二世 三世 四世 五世 六世 七世 八世 九世 十世 十一世 十二世

庭實

光

為寶

敦美

勇

緻

卿

贊

南龍

緝

輝

子孫居

陝川

草溪

居昌

耀

子孫居

居昌

此安

清道

富平

孝良

子孫居

牙山

孝敬

綱

玉

孝文

子孫居

清州

紘

子孫居

陰城

紘

子孫居

昌原

純

子孫居

清道

純

子孫居

善山

十三世 十四世 十五世 十六世 十七世 十八世 十九世 廿世 廿一世 廿二世 廿三世

玉

溫

孝仁

子孫居完島

孝義

孝禮

孝智

漢孫

弼孫

大孫

國良

國弼

國秀

栢

斗南

雲翼

時珩

希天

惟謹

尊意